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9

북한 인민군의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실각했다. 리영호의 실각과 관련된 북한측 발표는 “신병관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리영호의 실각을 북한 측 발표처럼 단지 신병 상의 문제나 통상적인 인사교체로 보기엔 어려운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리영호의 실각과정은 북한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리영호는 금년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32차례나 수행했으며, 김정일 장례식 때에는 운구차를 호위한 ‘8인방’ 중 한명으로 김정은과 함께 맨 앞줄에 위치했었다. 리영호는 최근 7월 8일에도 김일성 사망 18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정은과 함께 참배했다. 북한군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가 공개활동 8일 만에 모든 직책에서 전격적으로 해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실세는 외병여부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해임되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 식물인간상태에 도달한 중병을 얻은 경우도 직책만은 유지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김정일 운구차 ‘8인방’ 중의 한명인 우동측의 경우에는 김정일 장례식 이후 공개적 행보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동정도 보도되지 않는 등 실각을 예측하게 하는 징후가 뚜렷하였다. 리영호의 경우와 달랐다. 그 동안 리영호 건강이상에 대한 어떠한 보도나 관측도 확인된바 없다. 따라서 신병관계로 리영호가 실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리영호의 실각이 즉각 공개 발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독재국가의 경우 권력 상층부의 이동은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장기간 기밀에 붙여지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다. 리영호의 경우 실각이 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의 공개적 유포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군 및 주민은 물론 국외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공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몇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리영호의 실각은 자연스러운 인사이동이나 권력교체가 아닌 숙청에 해당하며, 현재 리영호는 구금 또는 연금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권력 상층부내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군정치라는 군 우선 체제에서 막강한 위상을 지닌 리영호의 전격적 실각은 큰 틀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영호의 실각은 북한 권력투쟁의 종식이 아닌 서막, 내지는 중요한 한 분기점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2012년 4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에 이어 권력서열 4위로 승진, 서열 5위인 리영호를 추월했을 때 이미 리영호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1959년 군에 입문, 야전에서 경력을 쌓은 리영호는 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으로서 북한군을 대표하는 최고 실세였다. 김정일 생전인 2010년 차수승진과 아울러 김정은과 함께 당 중앙위 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적 축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군 실세인 리영호를 중용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으로 하여금 당과 행정계통을 장악하게 함과 동시에, 아울러 군에 견제의 임무를 부여, 김정은을 보좌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성택계인 최룡해의 급부상도 김정은 체제공고화에 대한 김정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북한판 비상계엄이라 할 수 있는 선군정치의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군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군 위상 강화로 연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균형 확보 차원에서 김정일은 장성택과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리영호, 장성택, 최룡해는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을 위해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 받았으며, 김정일이 생전에 작성한 후계구도의 청사진을 구현할 주요 인물들에 해당한다. 군부와 당료 두 진영은 김정은 후계체제 형성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급사는 이와 같은 구도에 변화를 야기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지형을 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소멸된 반면, 김정은은 국정경험이 일천하고 스스로의 권력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 권력지형을 재편하거나 상층부의 권력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사후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반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고모부 장성택이 급부상한 계기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급사한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실세간 권력지형 재편과 아울러 권력갈등이 표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성택계의 인사들이 실세로 부상했다. 장성택은 당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그쳤지만, 장성택계의 인사들이 군과 공안권력의 수장 지위에 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군의 무력에 의존하는 북한에서 군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력엘리트 및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 확보차원에서 공안권력의 장악이 필요하다. 인민군의 최고위직인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리명수 모두 장성택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장악에 핵심적인 군과 공안권력의 수장이 모두 장성택계라는 점에서 4월의 권력지형 재편은 김정은 정권강화를 명분으로 한 ‘장성택에 의한 장성택을 위한 권력재편’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계의 부상에 비해 김정일 시대의 원로그룹 및 군 실세들은 상대적으로 퇴조했다. 리영호는 최룡해에 서열이 뒤졌으며, 우동측 보위부 1부부장은 김정일 장례식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인사였던 김영춘도 최근 김정각 전 총정치국 1부국장에게 인민무력부장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군 실권행사에서 멀어졌다. 오극렬 역시 권력엘리트 재편과정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군 공안권력 분야의 장성택계 급부상은 군부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군은 특수집단이자 단기간에 장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4월의 권력재편은 서막에 불과하며, 향후 본격적인 대규모의 인사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군부에 대한 장악은 민간인인 최룡해의 임명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단장 및 사단장, 그리고 핵심 보직에 대한 확고한 지지기반 형성이라는 후속조치를 필요로 한다. 리영호의 실각은 이 같은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료그룹인 장성택계가 신주류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앞두고 리영호를 중심으로 북한 군부가 반발했거나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리영호는 자신의 실각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성택계 공안라인의 전격적인 합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리영호의 실각은 일회용 사건이 아니라 김정일 사후 장성택계 중심의 권력재편 과정의 일환이며,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성택계는 군과 내각, 당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이 시도한 대규모 숙청사례인 심화조 사건을 넘는 규모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영호의 숙청과 아울러 최룡해를 정점으로 군의 주요 보직 및 군단장, 사단장 급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상할 수 있다. 현영철의 차수 승진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영호의 후임은 장성택 및 최룡해와 가까운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 조직비서로 봉직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 김경희를 통해서 당에 대한 조직개편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장성택은 자신이 풍부한 경험으로 내각을 관리하는 동시에 권력재편 과정 전반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과정은 김정은 권력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며, 김정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재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세력의 반발여부이다. 당장 리영호의 실각에 대해서 군원로 및 무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선 군부대의 반응여부가 관건이다. 장성택계의 군공안권력 장악이 아직 총체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영호의 실각은 정치적 게임에서 북한군부가

일시적으로 밀려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호위총국과 평양방어사령부 등 핵심적인 부대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장성택계의 고민은 리영호의 신병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군내부의 물갈이의 즉각적인 착수 여부일 것이다. 북한군부의 반발이 노골화될 경우 장성택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원로 그룹 및 당내 파워엘리트들이 장성택계의 권력재편에 직간접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예상 할 수 있다.

북한 권부의 안정성은 향후 진행될 장성택계의 포괄적인 권력재편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라는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존재했던 심화조사건에 비해 이번의 경우는 매우 다른 상황적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조정능력이 미약한 김정은이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김정은과 장성택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장성택계의 권력장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지지그룹의 필요성을 김정은이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영호의 실각을 개혁개방노선파와 보수강경파간의 노선투쟁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안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 노선투쟁을 위해 군의 실세를 제거한다는 추론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보다 급박한 권력투쟁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장성택계가 군 및 보수강경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할 경우 북한 위기의 원인을 이들에게 돌리고 대남대외 관계에서 유화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는 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리영호의 실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북한 권부의 변화는 북한 체제내구력의 약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와 통치엘리트의 결속을 통해 집권을 연장해왔다. 권력갈등은 엘리트진영의 균열과 통치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권력지형 재편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내의 균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이나 군의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일사불란한 통제 및 수습 능력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정력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부재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리영호의 실각과 이후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